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4월 1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새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 상 근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19일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진실하게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고 전에 혈기 왕성했던 저는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구들 여럿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제 눈에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동성과 연비 차원에서도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편하게 타고 다니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고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불행 중 다행히도 저는 피해자인 것이 밝혀졌지만 그 사고에서 저는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고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저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큰 사고 중에도 목숨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고 당일 연락을 받은 부모님에게 직업이 수간호사인 고모님이 추천해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저는 생사를 가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이 끝나고 또 두개골 성형수술을 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나의 일을 한다’라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으면서 저는 눈이 마주친 주치의 선생님에게 입을 열어 “선생님도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의 크고 위중한 수술과,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는 10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자 저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이 궁금하였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났으며,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알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교회의 구역장님과 성도님들의 합심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경을 헤매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그 때의 사고로 뇌의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나 어떤 시험이 없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 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도다”(시편 147:10,11) 할렐루야! 인자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뇌 손상으로 생긴 기억장애로 인해 과거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뇌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성경 말씀과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말씀은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것을 쉬지 말고 지속하라며 적극 추천 하셨습니다. 몸을 가꾸고 만들려면 운동을 하여 근육에 피로와 고통을 주고 이를 통해서 근육이 더 커지고 선명해지듯이, 뇌도 근육과 같아서 무엇을 외우려고 노력하면 뇌세포 또한 단련이 되고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연예인의 이름이나 생일처럼 무익하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손상된 저의 뇌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크고 좋은 효과를 줄지 기대를 가지고 암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송의 비결은 반복하여 읽고 듣는 것입니다. 자주 그리고 매일 10분마다 성경을 펼쳐 눈과 입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암송한 구절도 처음 보고 읽는 것처럼 또 보고 읽습니다. 이처럼 결심하여 행하도록 해 주신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헤드릴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고 결심하여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혼기가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통해 인자하신 주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를 만났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잠언 19:14) 아멘. 저는 복음전파에 관심이 많은데, 결혼한 이후 우리 교회의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일에 아내와 함께 참여하여 봉사하는 장점이 많습니다.

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이 악하고 격동하는 말세지말에,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체험하였고 또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저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인자하신 주님께 가지처럼 꼭 붙어있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부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8단원 : 성도의 생활 자세)

(제45과)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 **본문** : 시편 128:1-6
- **요절** :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시 128:3-4)
- **찬송** : 304장(새찬송가 579장), 305장(새찬송가 559장)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가 비바람에 떨듯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삭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해진 심신을 쉴 수 있고 또 내일에 필요한 활력을 새롭게 충전할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만들어진 유명한 노래 ‘홈 스위트 홈’(즐거운 나의 집)에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라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습니다. 변화와 경쟁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부부간에 화목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 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의 행복이 재물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더라도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많은 재물이 오히려 가족간에 불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서구의 왜곡된 풍조가 들어와서 이혼하는 사례가 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서로 다른 전통과 교육을 받고 살아온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는 매일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어 혹시 모를 오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옛말에 ‘반포지효’(反哺之孝)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자식이 커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뿐더러 태어났을지라도 제대로 양육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저택에 맛난 음식과 좋은 장난감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는 아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여 단칸방에 살지라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편을 아이는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늙고 병든 몸이 되어 거꾸로 자녀들의 손에 노후를 의탁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부모를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뭇가지가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 인륜에 관한 첫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하셨습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인륜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어 부모 공경의 정신이 점차 흐려져 가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 공경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의 가정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 세상적으로는 행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자나 깨나 땅의 것만을 추구할 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면, 그런 행복은 마치 원동지에서 잘려 나간 나뭇가지에 핀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의 첫째 조건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하신 대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크게 겁낼 것이 없습니다. 또한 매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격려를 나누게 되니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가정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시 128:1~4).

행복한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오순배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가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는 성도가 됩시다.